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김진수가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
서 교육을 받고 전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24~25년 사이 모스크바 ‘약소민족
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하얼빈·운남·북경 등지에서 활발한 항
일활동을 하였으며 1929년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독립자금지원
활동 등을 하면서 생애를 항일독립운동에 바쳤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진수가 중국으로 간 시점(1922년 10월)은 이미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가 폐교된 1920년 8월 후이므로 양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김진수의 별명인 김철(金鐵)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
(金鐵)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판단된다.
3. 일제 정보자료에 의하면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가진 김진수(金鎭水)는 1926년
경 상해 프랑스조계 해송양행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항일행적
은 밝힐 수 없었다.
4. 김진수가 1928년경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는 여관에 체류(滯留)한 사실
은 확인되지만 그 외 추가 자료나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찾지 못했다.

【전 문】

【사 건】 가-85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신청인】 김동수

【결정일】 2006. 12. 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김진수(金鎭水, 1896. 5. 9.~1946. 3. 31.)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규명을 요구하는 김동수(김진수의 손자)의 신청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접수 및 처리

- 2005년 12월 6일 전북 전주시청에 접수
- 2005년 12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
- 2005년 12월 8일 민족독립조사국 조사6팀에 배당
- 2006년 4월 25일 제7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
- 2006년 4월 26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발송

2. 신청내용

신청인(김동수)은 조부 김진수가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교육을 받고 전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24~25년 사이 모스크바 ‘약소민족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하얼빈·운남·북경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활동을 하였으며 1929년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독립자금지원 활동 등을 하면서 생애를 항일독립운동에 바쳤음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통한 김진수의 명예회복을 요구해 왔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의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하나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흥무관학교를 나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행적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III. 진실규명의 과제 및 쟁점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진수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수료 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수료했다는 것은 반일 무장독립운동의 최전방에서 독립군으로 복무한 항일투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9년 5월 조직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신흥강습소에 뿌리를 둔 무관학교로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3,500여명(현재 306명의 명단 발굴)의 독립군을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의 서로군정서·한족회와 유기적 연관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고,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은 청산리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19년 11월 결성된 의열단의 단원 13명 가운데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¹⁾

둘째, 『용의조선인명부(1934년)』, 『요시찰 인물카드 제557호』에 김진수의 별명이 김철(金鑠)²⁾·김철(金鐵)로 되어 있고 주소는 모스크바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카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김진수의 별명이 김철(金鐵)이었고 상해에서 활동³⁾을 했다면 김진수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던 김철(金鐵)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는 1919년 말 개교한 이래 43명(1회 1920년 5월 8일 19명, 2회 1920년 12월 24일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⁴⁾ 192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으로 동교 학도대 중대장을 겸임했던 김철은 1920년 12월 24일 동교 제2회 졸업식 때 동교 역사를 보고했고⁵⁾

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0~25쪽

2) 김철(金鑠)의 철(鑠)은 철(鐵)의 고자(古字)이다.

3) 朝鮮總督府警務局, 「上海南京廣東地方不逞鮮人ノ近狀」, 1926.3 : 京城地方法院, 『情報』, 1928

4) 李延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國家報勳處, 1999, 19쪽

그 후에는 한족회 간부,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하였으며, 1925년 정의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룡현(海龍縣)에서 일본경찰에게 살해되었다.⁶⁾

셋째, 김진수가 1928년 8월경 하얼빈 정주해의 집으로 이주한 이유와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규명하는 것이다.

『용의조선인명부(1934년)』 중에 “1928년 8월경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 집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김진수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시기·지역·노선·접촉주요인물 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김진수가 정주해의 집에 이주했다는 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주해(1892. 2. 25.~1942. 12. 12.)는 1919년 3월 충북 괴산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이청천(李靑天)부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26년부터 1930년 5월 초까지는 하얼빈에서 동성호(東星號)라는 여관을 경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숙식과 연락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는 등 하얼빈지역에서 항일활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넷째, 조선총독부경무국이 만든 『용의조선인명부(1934년)』와 ‘요시찰인물 제 557호’에 김진수가 기재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용의조선인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물로 반일조선인의 탄압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⁸⁾ 여기에 김진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산당, 1922년 10월 영어연구를 명목으로 중국 광둥성으로 도향, 1928년 8월경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 집으로 이전, 인물평외모 공산주의, 사상과격”⁹⁾

5) 「敍任及辭令」 『獨立新聞』, 1921.1.21 ; 「陸軍武官學校 第二回卒業式」 『獨立新聞』, 1921. 1. 1.

6) 元秉常의 수기,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35쪽 ;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1956, 437쪽

7)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獨立有功者功勳錄』 第4卷, 國家報勳處, 1987, 893쪽

8) 朴成鎭, 「朝鮮總督府 秘密記錄 管理의 植民地의 特徵」 『韓日民族問題研究』 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43~82쪽

『용의조선인명부』는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을 검거할 목적으로 만든 명부로서 여기 기재된 사람은 독립운동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명부에 김진수 이름이 기재된 까닭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사실이 규명된다면 이는 곧 김진수 사건 진실규명의 큰 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찰인물 제557호’에 대하여, 그 자료의 작성 기관·시기·성격 등이 밝혀지면 김진수의 항일행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IV.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조사의 방법과 내용

김진수 사건의 조사는 민족독립조사국 조사6팀 담당조사관의 책임 하에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문헌자료 발굴 및 자료 소장기관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지역 항일운동연구 논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한국사논저목록』,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2) 관련 문헌자료 발굴과 자료소장 기관 검색

문헌자료는 국내의 경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

9)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관, 국가보훈처,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각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으며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국외지역은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흑룡강대학 한국사회문화연구소, 요녕대학 한국연구중심, 대련시도서관 노신로분관(魯迅路分館), 길림성당안관, 흑룡강성당안관, 요녕성당안관, 장춘도서관 등의 경우 국내기관에서 수집·소장하고 있는 목록을 1차적으로 검색하고, 중국에서 발행한 자료목록집을 검색하였으며 인터넷 검색도 병행하였다.

그 외 정기간행물로는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삼천리』 등을 검색하였다.

3) 전문가 자문

항일독립운동사 분야의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 고구려연구재단,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주용(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일제하 중국 만주는 항일운동의 중심지였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이름만 알려졌거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
- 김진수 사건은 신청내용으로 볼 때 이름은 알려졌지만 구체적 항일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중국 쪽의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 자료조사는 1차로 중국의 당안관, 도서관, 대학 등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한 국내의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

처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2차로 중국에서 펴낸 소장목록 도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당안관은 물론 도서관 등의 소장 자료도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공식적 자료 수집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변은진(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중앙조사과장)

- 김진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조사하여 펴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엮음, 창작과비평사, 1996) 작업과정에서 발굴된 인물인데, 이 사전에는 수록되지 못했고,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수록 예정 인물정보 : 노령·만주지역 C급 편』(미간행본)에 수록되어 있다.
- 당시 김진수를 발견한 자료¹⁰⁾에서 그 행적의 일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활동상은 파악하지 못했다.
- 독립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비밀리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독립운동가는 가명, 별명, 변명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조사와 기간이 필요하다.
- 중국지역 자료는 비공식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고 많은 비용이 든다.
- 중국지역 자료는 목록(세부 목차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만으로 수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3)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만주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인적·물적)이자 국내진공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고, 신홍무관학교는 서간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10)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중 밝혀진 인물은 10%정도에 불과해 자료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일본의 방위청과 중국의 당안관이 1차 자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 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안관의 공식적 자료조사는 불가능하고, 일본의 방위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많다.
- 1920년대는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이 양대 축으로 정립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김진수의 경우는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으로 판단되고 만주지역 독립운동사 전공자(한국은 장세윤·신주백 등, 중국은 박창욱·김춘선·김성호 등)의 자문을 받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현주(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연구관)

-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한 김진수 사건¹¹⁾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내역과 같고 추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 김진수의 반일경향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독립운동 행적이 발굴되지 않아 미포상으로 결정되었다.
- 일제시대 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면 항일행적이 뚜렷해도 국가보훈처의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5) 장세윤(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김진수는 이름만 알려지고 항일운동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으로 보이고 그의 행적규명은 많은 시간과 자료발굴이 요청된다.
-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 만든 명부¹²⁾는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추적·

11) 1998년 1월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를 신청했고 2000년 '활동입증자료 미비'로 미포상되었다.

12)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검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항일운동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명부에 기재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는 아직도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많다.

- 김진수 개인의 행적뿐 아니라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잊혀졌거나 이름만 남아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밝혀 복원하는 것도 진실 화해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6) 김우중(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고문)

- 김진수는 잘 모르지만 정주해가 하얼빈에서 경영하는 여관 동성호는 도외태고(道外太古) 14도(道)에 있었고,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 사건으로 정주해·허형식 등이 체포되었다.
- 현재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당안관 자료 조사는 불가능하다.
- 김진수의 명부에 노국공산당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련공산당과 직접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소련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신청인 진술조사

신청인 김동수와 김철하(김진수의 넷째 아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

- 김진수가 중국에 간 시기는 김철하(1920년 11월 12일생인데 호적에는 1921년 6월 20일로 되었다고 함)의 돌 사진에 김진수가 있고, 돌 이후 중국으로 갔다고 들은 것으로 볼 때 1921년 말경 이후 중국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 학교는 평양 오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앨범 등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

13) 「참고인 진술조사」 (2006. 5. 25.)

고, 태인주민들은 모스크바대학을 나와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다.

- 교우관계는 동향 친구인 송문상이 오산중학교 동문이고, 부안의 벽산 김철수와는 모스크바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광주 국기열(동아일보 지사장)과 화가 허백련, 그리고 독립군 여단장 및 반민특위 부위원장 고평등과 교우했다.
- 이시영의 집에서 기거하며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는데 기마부대라고 들었고,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3년 있다가 1924~25년에 모스크바로 가서 ‘약소민족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 하얼빈 공원에서 일본 밀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고, 재산은 천석지기 정도를 소유했고, 남녀 8~9명의 일꾼을 두었다.
- 첨부 자료인 ‘요시찰 인물 제557호’는 8·15 뒤 건준 치안대장할 때 태인주재소에서 입수했고, 조선총독부경무국 자료는 광명보훈처¹⁴⁾에서 연락이 와서 입수했다. 자료상의 별명은 예전에도 들었지만 정주해는 처음 듣는다.
- 1929년 이후 국내 활동은 군산에 친구가 있어 왕래했고, 금산사 옆 문화금광을 경영했고, 1945년 8월 16일 김진수의 집에서 건준 태인지부를 조직하였다고 들었다. 김진수는 건준 태인지부 위원장이었다.

5) 참고인 진술조사

김진수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촌로와 김진수의 넷째 며느리, 김진수의 친척 전 정읍문화원장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광명보훈처는 없는 곳이고 자료를 전달한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 장호상(1921년생) · 송극상(1924년생) 면담조사¹⁵⁾

- 김진수의 학력에 대해서는 태인보통학교, 평양오산학교, 하얼빈소재 군부 관계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으며, 국외 지역 체류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에 갔다는 말은 들었으나 일본에 체류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만주로 간 이유는 일제가 요시찰인물로 감시하였기 때문이었고, 김철하가 출생한 이후에 갔다.
- 백석지기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던 김진수는 운하(雲河)광산을 경영하였고, 군산에서 미두(쌀경매) 사업 등을 했으며, 태인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광산은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1930년 이후 김진수의 운하광산 경영은 좀 의문이 든다.
- 건준 조직은 알고 있지만 김진수가 위원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며, 김철하가 치안대 활동은 했지만 치안대장은 아니었고, 태인리 만세운동 참여 여부는 잘 모르겠다. 중국에 가기 전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은 이유는 모르지만 만주로 가서 군사학교를 다녔고 소련에서도 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들었다.
- 독립운동을 했다고 들었지만 내용은 모르며, 지역유지로 존경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지역사회 공헌은 없었다.

(2) 신석원(1926년생, 김진수의 넷째 며느리) 면담조사¹⁶⁾

- 김진수의 중국 활동에 대해서는 기마대에서 전령을 하였다고 들었고, 북경대학에도 가봤다는 말과 운남에서의 이야기도 들었다. 생활정도는 시집왔을 때 작은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
- 조선총독부경무국 자료 입수는 서울의 사학자가 태인면사무소로 보냈고,

15) 「참고인 진술조사」 (2006. 5. 26.)

16) 「참고인 진술조사」 (2006. 6. 15.)

태인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입수하였다.

- ‘요시찰인물 제557호’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남편 김철하가 카드를 보여 주었다.
- 귀국한 시기는 잘 모르겠고, 귀국했을 때는 병에 걸려 있었다.

(3) 김인하(1916년생, 김진수의 친척) 면담조사¹⁷⁾

- 국가보훈처에서의 미포상 사유는 수감기록이 없고, 좌익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19년 소련에서 유학했고,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김정곤이 유학 자금을 대주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소련에 다녀와서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1929년 이후 국내에서 면협의회 선거에 참가하여 당선되었고, 광산업도 하였으며, 건준 태인지부 위원장을 했다, 김철하가 치안대장을 한 사실은 없다.
- 재산정도는 천석지기로 지역유지 집안이었다.
-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는 소련에 갔을 때의 이야기만 들었고, 그 외 행적은 잘 모르겠다.

(4) 최현식(전 정읍문화원장) 면담조사¹⁸⁾

- 『정읍항일운동사』¹⁹⁾를 쓸 때 김진수라는 인물은 알았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어 기록하지는 않았고, 김진수가 서울 오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는 기록²⁰⁾은 장봉선 선생이 당시 4년간 모든 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사람을 면담하여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17) 「참고인 진술조사」 (2006. 6. 16.)

18) 「참고인 진술조사」 (2006. 6. 15.)

19) 崔玄植, 『井邑抗日運動史』, 井邑文化院, 1994

20)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霞露齋, 1936, 348쪽

- 면협의회위원, 광산경영, 정읍자동차주식회사 감사여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지라고 볼 수 있으나,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귀국하여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

6) 중국하얼빈 현장조사

1928년 8월 경 김진수가 체류했던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가 경영하는 여관 동성호 자리를 답사(2006년 8월 30일)했는데 현재 주소는 도외태고(道外太古)이고 동성호는 찾지 못하였고,²¹⁾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 때 동성호에서 정주해가 체포된 사실은 확인되나 김진수가 이와 관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조사의 경과

김진수 사건의 조사 진행경과를 시간 및 일정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별	조 사 내 용
2006. 2.28	국가보훈처에 김진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다.
3.21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김진수 사건은 1998년 1월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되었으나 2000년 ‘활동입증자료 미비’로 미포상 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3.21	류연산(연변인민출판사 부총편집)·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과의 면담에서 잊혀져간 독립운동사 발굴, 만선일보·협화회 회보 등의 자료에 대한 발굴 및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3.24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기념준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중국지역 연구자 황민호·김형목 등을 면담하여 자료수집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30	국사편찬위원회 구선희(편사연구관)·조명희(편사연구사)를 면담하였다.

21) 「사건현장 조사보고서」(공무외국여행 결과보고서), 5쪽

- 4.7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정관희(공훈심사과)·김성민(공훈심사과)과 민족독립조사국의 업무관련 협의를 하였다.
- 4.1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변은진(중앙조사과장)·김일수(지역조사과장)·구수미(중앙조사과 전문위원) 등을 면담하여 중국지역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었다.
- 4.28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김주용(연구원)·홍선표(책임연구원)를 만나 현재 국내 기관들의 중국지역 자료수집 상황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 5.3 정읍경찰서·정읍시청에 김진수 사건과 관련 자료소장 여부와 출장관련 조사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 5.11 국회도서관에서 신홍무관학교 관련 일제 정보문서인 『국경지방시찰복명서』를 복사하였다.
- 5.23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과 자료수집과 관련한 강연(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을 들었다.
- 5.25 제1차 현지조사에서 김철하(김진수의 자)·김동수(김진수의 손자) 등 ~ 2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청취하였고, 장호상(전 농협조합장)·5.27 송극인(전 태인면장) 등 2명에 대하여는 참고인 면담을 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기관(정읍시청, 태인면사무소, 정읍경찰서, 정읍문화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 5.30 정읍시청에 정읍시지(誌) 등의 송부를 의뢰하고, 경찰청에 ‘요시찰인물 제557호’ 원본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6.5 경찰청에서 김진수 관련자료 ‘요시찰인물 제557호’ 원본은 물론 그런 성격의 자료 자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6.13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에 김진수 학적 관련 사항을 확인·통보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LG상남언론재단에 해방공간 4대신문 영인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6.14 제2차 현지조사에서 신석원(김진수의 며느리)·김인하(김철하의 사 ~ 촌)·최현식(전 정읍문화원장) 등 2인에 대한 참고인 면담조사를 6.16 청취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 6.21 태인초등학교에 김진수의 학적부를 발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22	국가기록원이 러시아에서 수집·소장하고 있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김진수가 경영하였던 운화광산 관련 자료를 복사하였다.
6.28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김진수 관련 자료조사 및 면담(이광수·이민자·송상원)을 하였다.
6.29	국가보훈처에서 김진수의 미포상 사유 관련 자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조규태·김성민·이현주)을 면담하였다.
7.3	만주지역 당안관 자료 및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장세윤을 면담하였다.
7.12	김진수 사건 관련 만주지역 항일운동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하여 흑룡강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고문 김우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7.20	홍범열(흑룡강신문 한국지사장)을 면담하였다.
8.1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구수미(전문위원)·류승주(해외조사과)·구성철(조사관) 등 3인을 면담하였다.
8.29 ~ 9.6	김진수 등 조사와 홍보 관련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하였다.
9.14	국가보훈처에서 중국지역 자료 및 혁명열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9.2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소장된 중국 자료 수집과 검색을 하였다.

V. 조사결과

1. 학력과 ‘신흥무관학교’ 경력

- 1911년 6월 30일 설립된 태인공립보통학교(현 태인초등학교)를 1913년 3월 25일 제1회로 졸업했다. 학적부에는 김진수(金鎭水)의 한자 중 수자가 수(洙)로 되어 있고, 생년월일은 1896년 8월 6일로 기재되어 있다(태인초등학교 발송 학적부 사본).
- 서울 오성(五星)학교를 1914년 입학하여 1916년 졸업했다.²²⁾
- “중국, 러시아 각지에 유학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귀향한 씨(김진수-인용자)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호의과단(豪毅果斷)하여 매사에 실행력이 풍부하며, 단호김철(斷乎金鐵)을 파열할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다”, 김정곤(金禎坤)은 “태흥리에 거주하는 36세의 청년유지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이해심이 풍부하여 그 당질 진수(鎭水)씨는 노국 유학 당시에 7, 8백원의 학자를 자진 보급하였으므로 본인은 물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였다.”²³⁾

오성학교(1910. 10.~1918. 4.)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장도빈(張道斌)·유근(柳瑾)·최창식(崔昌植) 등의 교사에 의해 반일 민족교육을 실시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는데, 김진수가 오성학교를 졸업(1916년 3월)한 것으로 보아 이 학교에서 항일의식을 체득하고 중국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진수가 중국으로 간 시점(1922년 10월)은 이미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된 상태이

22) 오성학교 학적부에는 김진수의 주소가 전북 태인군으로 되어 있다. 1910년 10월 1일 설립된 오성학교는 1918년 4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고 그 뒤 오성강습소(1921. 4. 1.~1922. 3. 1.)로 계승되었다. 현재는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어졌다(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광신중·고등학교, 『광신백년사』, 광신100년사편찬위원회, 2005). ; 『井邑郡誌』(張奉善編, 光洞 履露齋, 1936, 348쪽)에는 김진수가 경성 오성(五成)중학을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3)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履露齋, 1936, 348쪽.

므로 김진수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다른 중국내의 무관학교를 나왔을 가능성도 고려해 황포군관학교·운남강무학교 등의 졸업생 명부²⁴⁾와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²⁵⁾ 등의 명부도 확인했으나 김진수의 이름은 찾지 못했다.

2. 김진수와 상해 임정 육군무관학교 교관 김철(金鐵)과의 동일인 여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金鐵)은 1911년 만주 유하현(柳河縣)으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고 서간도 한족회·서로군정서 등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1925년 정의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국 해룡현(海龍縣)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당했다.²⁶⁾ 김진수는 1911~1913년 태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 1922년 10월 중국으로²⁷⁾ 가기 때문에 김진수가 별명으로 쓴 김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과는 동명이인으로 판명된다.

2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 曾其濤·曾俊偉, 「雲南陸軍講武學校華僑學生概況」, 『廣東文史資料』 23, 1979 ; 朝鮮總督府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 1934. 12.(韓洪九 李在華 편, 『韓國民族運動解放運動史資料叢書』 3, 京沅文化社, 1988)

25) 당시 러시아에는 동방노력자공산주의대학, 서방소수민족공산주의대학, 손일선대학, 레닌주의학교, 스페치로프공산주의대학, 엥겔스마르크스경제대학, 쿠루프스카야공산주의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있었고, 이 가운데 동방노력자공산주의대학은 동방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극동거주 러시아인,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혁명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우동수, 「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 코민테른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575~623쪽). 이하의 자료는 РГАСПИ(러시아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논문자료인데 한글로 번역하여 제목을 붙였다. 「신입학생일람표 : 1924년 접수 김호반 등 45명」 1~2쪽, 「김영식 등 27인 신상 일람표」 1쪽, ф.532 оп.1 д.425 ; 「모스크바 공산대학 조선인 그룹의 역사」 1~7쪽 ф.532 оп.1 д.421 ; 「학생 신상일람표(50인)」 1~2쪽, 「학생 신상일람표(14인)」 1쪽, ф.532 оп.1 д.423.

26)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1956, 437쪽

27)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김진수의 넷째 아들 둘(1921년 11월 12일) 사진에 김진수도 있다.

3. 김진수와 정주해의 관계

정주해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1926년 하얼빈 도외태고에서 동성호라는 여관을 경영하며 독립군의 숙식과 연락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0년 주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된 것은 확인되지만, 김진수가 1928년경 정주해의 여관에 체류했으나 그 외 추가 자료나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찾지 못했다.

4. “요시찰 인물 제557호” 원본 확인

신청인이 해방직후 전북 “정읍경찰서 태인주재소에서 입수한 항일사상자”라고 써 첨부한 ‘제557호’의 원본은 경찰청, 정읍경찰서, 태인지구대, 국가기록원 등에 조회했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자료의 작성 기관·시기·성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중국 상해의 행적

- 조선총독부경무국이 1928년에 펴낸 자료에는 김진수의 1926년경 주소가 상해 프랑스 조계(法界) 주가교(朱家橋) 실안리(室安里) 해송양행(海松洋行), 생년월일이 1892년 5월 9일생, 본적이 전라북도 정읍군, 별명은 철(鐵), 성행은 음험하고, 배일사상 불온언동을 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²⁸⁾
- 한진교(韓鎭敎, 1887. 1. 16.~1973. 12. 12.)는 상해에서 해송양행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내는 한편 신한청년당·대한민국임시의정원·한국국민당 등의 독립운동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²⁹⁾

28) 朝鮮總督府警務局, 「上海南京廣東地方不逞鮮人ノ近狀」, 1926.3 : 京城地方法院, 『情報』, 1928.

29)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獨立有功者功勳錄』 第5卷, 國家報勳處, 1987, 818~820쪽.

위의 자료에 의하면 배일사상을 가진 김진수는 1926년경 상해 프랑스조계 해송양행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항일행적은 밝힐 수 없었다.

6. 국내 행적

- 1929년 6월 23일 김진수는 일제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어 17일간 취조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는데 체포 이유와 석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 태인읍내 김진수(金鎭洙, 34)씨는 구개년 동안 해외에 류하다가 지난 이십삼일 고향인 태인에 도라왔었는데 정읍경찰서에서 돌연 검속하였다더라.”³⁰⁾

“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 김진수씨는 십년 전 봄에 공부를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 갔든바 지난 이십삼일에 돌아오자 태인경찰은 즉시 검거하였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러시아도 수년 동안 잇섯슴으로 00당과 어떠한 연락이 있지 안는가 하여 그러함인 듯하다더라.”³¹⁾

“태인읍내 김진수씨는 십년 전에 집을 떠나 중국 안남 러시아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지난달 이십삼일에 돌아오자 즉시 정읍경찰에 검거되어 이래 십칠일동안 매일 취조를 받았으나 하등의 증거가 업서 일전에 석방되었는데 경찰의감시가 엄중하다더라.”³²⁾

- 김진수는 1927년 12월 설립된 정읍자동차주식회사(전북 정읍군 정주읍 연지리 343-8 소재) 감사직에 있었다.³³⁾
- 김진수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소재의 운화(雲華)광산을 경영하였다. 이 광산은 광종이 금은, 기준년도 1943년, 등록번호 9129, 광업권 등록년도 1932년, 최종광업권자 김진수(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인면 태흥리

30) 「金鎭洙氏拘禁」 『중외일보』, 1929. 6. 27.

31) 「金鎭水氏檢束」 『동아일보』, 1929. 6. 29.

32) 「金鎭水氏釋放」 『동아일보』, 1929. 7. 15.

33) 帝國興信所釜山支所 編, 『朝鮮實業要錄』, 1935, 133쪽

281) 외 1인으로 되어 있다.³⁴⁾

- 김진수는 1935년 일제의 ‘지방자치’라는 명목아래 실시된 태인면 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현(現)에 면(태인면 - 인용자)협의회원의 임에 있다.”³⁵⁾

1929년 이후 김진수는 운화금광 경영·정읍자동차주식회사 감사 등의 경제 활동에 치중했고, 1935년에는 태인면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일반적인 항일운동 노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VI. 결론

조사개시 이후 전문가, 신청인, 참고인 등의 자문과 면담 그리고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배일사상을 가진 김진수가 1926년 상해에서 독립운동가 한진교가 경영하던 해송양행이라는 가게를 주소로 하고 있었던 점, 1928년 8월 경 하얼빈에서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연락처 역할을 하던 동성호라는 여관으로 간 점,

1929년 6월 23일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어 17일 간 일제경찰에 취조를 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점 등은 확인되지만, 김진수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밝혀지지 않아 김진수의 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할 수 없었다. 이에 김진수의 진실규명 신청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한다.

3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整備 金鑛山要覽』, 1982, 359쪽

35)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履露齋, 1936, 348쪽 : 「當選된 面協議員」 『동아일보』, 1935. 5. 26.

□ 참고문헌

- 고영,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백암, 2002
- 강대민,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의사』, 고구려, 2004
- 강희남 외, 『중국 동북 3성을 가다』, 모시는사람들, 2003
- 고구려연구재단,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자료 편람집』, 2005
- 高泳辰, 「西間島 獨立軍基地 建設運動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사회과 역사교육분야 석사학위논문, 1990
- 국가보훈처, 『間島事件關係書類 (II)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9), 日本篇』, 2004. 4
- 국가보훈처, 『間島事件關係書類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8) 日本篇⑧-』 I, 2003. 12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1, 2』, 2002
-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0)-중국편 5:北間島지역獨立軍團名簿-』, 1966
-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국립공문서관·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외교사료관 외-』, 2002. 12
-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9 -中國東北地域篇 I-』, 2003
-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5 -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III-IV-』, 2001
-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5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1875~1945-』, 2003. 12
-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學會,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03
- 국회도서관 편, 『韓民族運動史料 제2집中國篇: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 1976
- 김강령, 「新興武官學校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 金錫營, 『祖國光復의 大人韓國臨時政府 主席 石吾 李東寧 一代記』, 진명文化社, 1995
- 김성신, 「新興武官學校에 관한 研究」,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金勝一, 「中國東北·韓國獨立運動史上的新發現」, 上海人民出版社, 1996
- 金英卿, 「石吾 李東寧 研究」,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해안, 2002
-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 唐修佳·吉林省通化市政協文史委員會, 『朝鮮獨立軍在中國東北活動史略』, 遼寧民族出版社, 1993
- 대한민국임시정부옛청사관리처,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역사공간, 200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군 전투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동위원회, 1976
- 류연산, 『만주 아리랑』, 돌베개, 2003
- 류연산,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 보고서-』, 아이필드, 2004
- 朴鍾淳 譯,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2002
- 박환, 「滿洲地域의 新興武官學校」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1989
-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 박환,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1
- 復旦大 韓國研究中心資料室, 『20世紀韓國獨立運動 論著目錄 -中國篇-』, 국가보훈처, 2002
- 시준미, 『중국상해지구 한인항일독립운동사』, 고구려, 1999
-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 창, 2005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歷史學報』 169, 歷史學會, 200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석원화, 『중국공산당과 한국독립운동 관계기사연구』, 고구려, 1997

石源華, 『中國共產黨援助朝鮮獨立運動紀事1921-194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

소재영 편, 『間島流浪 40년 中國 시베리아紀行文 23選』, 朝鮮日報社, 1989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신주백, 『중국지역 민족운동사-1920~30년대-』, 선인, 2005

안천, 『신흥무관학교: 정통 독립군·원초적 사관학교』, 교육과학사, 1996

王檣林·朱漢國, 『中國報刊辭典1815-1949』, 書海出版社, 1992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한인고려인 조선족의 민족운동-』, 집문당, 2005

윤충남, 『하파드 연경도서관 한국귀중본 해제-제2권-』, 경인문화사, 2005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5

이정규 외, 『우당이회형약전』, 을유문화사, 1985

李炫熙, 「新興武官學校 研究」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李鴻文, 『30年代朝鮮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

임채정,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2005

장세윤,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張存武·胡春惠·趙中孚, 『近代中韓關係史料彙編1860-1945 1冊』, 國史館刊印, 1998

조규태 외,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 보훈연수원, 1995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日戰爭時期國民黨軍機密作戰日記上中下』, 中國檔案出版社, 1995

崔蓮·金順子,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1949-199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5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연구』, 선문대출판부, 2005

최장근, 『간도영토의 운명-일본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틈새에서-』, 백산자료원, 2005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한국독립유공자협회,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집문당, 199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韓國抗日民族運動과 中國』, 국학자료원, 200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편,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中國集-尹炳奭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한상수, 『독립운동유적지 문건록』, 문음사, 1998

韓中交流研究中心 編, 『中國에서의抗日獨立運動』, 고구려, 2000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